

일주문

관음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4월 4일 창녕 법성사에서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기념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창립 12주년 법회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장 지원 스님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생명나눔본부 장기기증 제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11일 이수건설 사회복지공동우회 브라운스톤야구단(회장 이광섭)과 장기기증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고운사 상사 성지순례 개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4월 30일 부여 고관사, 논산 관촉사·쌍계사로 삼사 성지순례를 거행한다. (054)833-2324

봉은사 보살계 수계살림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9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 임시법당에서 2012년 윤달 삼사칠중 보살계 수계살림을 개최한다. (02)3218-4800

심곡사 제1회 떡묵음악회
익산 심곡사 주지 화평 스님은 4월 21일 정정렬 명창 득음 및 떡묵공연장 건립기념 제1회 심곡사 떡묵음악회를 개최한다. (063)855-2001

문빈정사, 강경마를 디큐 영화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4월 6일 문빈정사 대웅전에서 제주 강경마를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최했다.

남원 103연대 미륵심선계 수계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은 4월 9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남원 103연대 장병을 대상으로 미륵심선계를 수계했다.

한국불교홍익법파단 창단
김해대 불교학과 교수 지효 스님은 3월 27일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1회 한국불교홍익법파단을 창단했다.

명상리더십센터, 수련회 열어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 센터장은 4월 20-2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2-2101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에 매진”

조계종 장애인전법담당 도륜 스님

부처님 제자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천안통을 얻은 아나올과 지적장애인으로 먼지를 털며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듯이 있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는 일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다.



도륜 스님은 “불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들이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심정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성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 왔다. 지난 1년 동안 조직정비 강화에 힘써 왔고 제주 약천사 템플스테이, 사찰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홍보, 장애인 신행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스님은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불교계 장애인 시설이 있고 원성회, 보리수아래, 해광원, 대광명인불자회, 해광명인불자회 등의 단체가 있다. 이들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동을 펼치며 불멸 공포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런 힘을 모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앞으로 점차 경전 발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템플스테이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스님과 불자들 모두가 장애인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심으로 찍은 사진... 필름만 24km

조계종 30년 기록 60만장 종단에 기증 배영수 작가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월 4-10일 개최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록물 전시회’는 현광(玄光) 배영수 작가(76)가 있어 가능했다.

배영수 작가는 전시회를 위해 조계종 주요행사 사진을 조계종에 흔쾌히 기증했다. 배 작가의 사진은 4cm 필름 60만장, 이를 늘어놓으면 24km, 서울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닿을 거리만큼 된다.

“기록물 관리는 종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업무가 안났으니깐요. 제가 육신내서 갖고 있다면 종단의 소중한 역사가 사장될 것 아니겠어요?”

배 작가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30년간 조계종의 역사를 필름에 담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예로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배영수 작가는 조계종 행사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배 작가는 당시 포교원 산하 중앙법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사회부장이던 배법장 스님(前 총무원장) 추천으로 총무원일을 시작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황진경 스님으로부터 사랑장을 전달 받으며 “열심히 잘해보라는 말”에 배 작가는 30년을 조계종을 위해 헌신해 왔다.

조계종은 배영수 작가의 이런 공로를 인정해 4일 전시회 개막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약한 힘이지만 조계종 역사기록



에 보탬이 돼 영광입니다.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우리사회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불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동서양 흐름 알면 미래 사회 보여”

불광아카데미 ‘붓다와...’ 연 이도흠 교수

“불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사상과 만나서입니다.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쪽에서는 서구문명을 쫓아 왔죠. 정신분석, 뇌과학 등 수많은 임상실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이루어 온 서구의 과학과 철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결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고 서양 문명의 한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불광아카데미 특강 붓다와 서양 철학자의 대화 첫강좌가 4월 11일 송파구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동양과 서양, 생각의 차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서양 철학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서양이 주체 중심의 사회라면 동양은 관계 중심의 사회라 말한다. “미국의 한 학자가 유학생들에게 어항의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서양의 학생들이 어항과 물고기만 그려내는 반면, 동양의 학생들은 어항 안의 수풀도 그리고 어항이 놓여진 탁자도 그리고 주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서구가 이데아 혹은 주체중심 실제 중심주의의 사고를 해온데 비해 동양은 주변 사람을 통해 자신을 규정 짓는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온 결과라고 설명한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누군가에게 너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우주의 실제 이데아 중심의 사유를 해온 서양인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양 사람들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승은 누구냐, 친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양이 주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면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데서 오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양의 문화를 중세 현대 탈현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교수의 강 의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김형호 前한국중앙연구원 교수, 김석 건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강사를 초빙 동양 철학과 서양철학을 결합한 다양한 강좌를 펼친다.

인간중심적 사고는 이성이 도구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전세기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과 기후는 인간중심주의의 사고가 낳은 병폐 중 하나로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깨닫고 탈현대 사회에서는 생태론적 패러다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중세시대에는 기도하는 여자의 그림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누드화가 인기를 끄니다.”

현실적시 불교사상은

인류 위기 극복 대안

탈현대 사회에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hybridity(혼성성)의 사회가 되었죠. 탈현대 사회는 이미지를 사유하는 시대로 영화가 현실을 만드는 등 인간이 미디어를 모방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과 허상을 뚫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불교 사상은 인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했다. “18세기 서양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운은 불교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서양의 총괄적 흐름을 숙지하면 현대 문명 사회의 여러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불광연구원은 이 교수의 강의 의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김형호 前한국중앙연구원 교수, 김석 건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강사를 초빙 동양 철학과 서양철학을 결합한 다양한 강좌를 펼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점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점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 4 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